

일개 보건계열 및 비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도 조사

최용금¹, 오태진², 이현³, 임근옥¹, 홍지현⁴, 김은정^{5*}

¹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및 유전체 기반 바이오IT 융합연구소,
²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제약생명공학과 및 유전체 기반 바이오 IT 융합연구소,
³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⁴선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⁵서울대학교치학연구소

A survey of the Necessity and Perceptions of Character Education of Health Science and Non-health Science University Students

Yong-Keum Choi¹, Tae-Jin Oh², Hyun Lee³, Kun-Ok Lim¹,
Ji-Heon Hong⁴, Eun-Jeong Kim^{5*}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and Genome-based BioIT Convergence Institute, Sun Mo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and Biootechnology & Genome-based BioIT Convergence Institute, ³Division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un Moon University,

⁴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Sunmoon university,

⁵Dent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비보건학과와 보건학과 계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인성교육의 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설계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206명으로, 비보건계열, 보건계열 학과 학생 모두 인성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학습을 통한 인성발달 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모두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역량에 따른 자기이해 수준에서는 모든 학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배려'와 '책임' 항목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 인식 차이에서는 '의지'에서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인성수준에 관한 응답에서는 모든 학생에서 본인들의 인성이 '높다' (42.1%)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인성교육과정은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 모두 '만족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건학과 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비보건계열 학생들보다는 높은 결과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가 많지는 않았다. 이를 위해 학교에 구분 없이 대학생들에게 인성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고,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more advanced courses on character education by surveying and analyzing the perception and demands of character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further,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creating institutional protocol on character educ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018 to May 2018 on students attending the departments of non-health science and health science university students. A total of 206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all the students in the non-health science and health science departments were found to be highly aware of the need for character education, its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ality development through learning. Students from all the departments showed high levels on average in terms of self-understanding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abilities, and especially their high levels of 'considera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elf-efficacy, the lowest level of recognition was for 'will' and the average values were not high. In their response to personality level, all students answered that their personality was 'high' (42.1%), and that the personality education courses at the schools they are currently attending were 'not satisfied' with both the non-health science and health science students. As a result, there were higher results overall for the health science students than that for the non-health science students, but there were not many significant differences. To this end, education institutes will have to prepare condi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to cultivate their expertise in character, while at the same time helping them grow into human beings with the qualities demanded by societ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curriculums and content by accurately identifying the needs of character education and devising concrete measures for their implementation, and by more faithfully consider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ntext types for the content base of character education.

Keywords :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 Necessity, Perception, University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Eun-Jeong Kim(Seoul National Univ.)

email: kej1007@snu.ac.kr

Received May 30, 2019

Revised June 25, 2019

Accepted August 2, 2019

Published August 31, 2019

1. 서론

인성교육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학교 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교육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와 적극적인 접근이 시대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에 관련연구자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1]. 인성교육이라는 용어는 교사와 교육자,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데[2], 인성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명백한 교육과정이나 지침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다, 용어정의마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고[3], 인성교육의 효과 또한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성교육의 주체는 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대학의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드문 현실이다[4]. 대학은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대학교육과정에서 인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5], 대학에서 가능한 인성교육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를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이며,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진로를 결정하는 등 중요한 시기이다[6]. 이러한 시기는 인성적인 자질과 사회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요구하게 된다[7].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고교시절,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해 인성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대학생에게 리더십,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7]. 현재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책과 이론 위주라기보다는 스스로 사회나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과 직업교육, 대학의 경쟁력을 갖춰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8].

현재, 우리 인성교육이 전제로 해야 하는 인성을 한 마디로 규정짓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사회의 주체인 시민을 전제로 하여 합리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성이 그 핵심요소가 되어야 하고, 이 시민성에는 다시 자신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내면적 성찰 능력과 타자와의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의 주체인 시민을 전제로 하여 합리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성을 학습하고 발

달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내면적 성찰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자신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에서의 보건계열 학과의 학생들은 학기마다 행해지는 임상실습과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형성을 하게 된다. 이들은 졸업 후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9]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수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10]는 보고되었으나,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인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다른 계열의 학과와 노출되는 부분이 다를 것이다. 이에 따라 인성에 관한 인식도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비보건학과와 보건학과 계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비보건학생들과 보건계열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역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인성교육의 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설계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추출로 선정된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학과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조사에 동의한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 산출을 위해 제1종 오류 0.05, 검정력을 80%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88명이었고(G*Power 3.1.9.2), 응답 오류를 고려하여 총 조사인원을 206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된 설문으로, 설문조사 전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뒤에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6명의 설문지만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연구조사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설문지는 인성교육과 관련 문헌연구[11][12]에서 제시된 설문 조사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형태로 응답내용을 조사하였다. 일반정보,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기이해정도, 8대 인성역량 자기인식 수준정도, 자기효능감, 인성교육 실천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는 인성교육 필요성, 인성교육수준, 시기, 인성발달정도, 인성발달 장애 요인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자기이해수준도에 관한 문항은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기 확신, 자기가능성, 불안감,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구성하였다. 8대 인성역량은 소통, 협동, 책임, 예, 효, 존중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 효능감에 관한 문항으로는 문제해결, 갈등관리, 자기믿음, 순발력 등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성교육 실천과제인식에 관한 문항은 인성교육 변화 필요성, 교양, 전공교육과정 인성교육 필요성, 인성교육의 종류 등의 내용으로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2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정보사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과별 인성교육 인식 및 인성영역과 관련된 자기이해, 자기 효능감 등의 항목은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설문문항 항목에 대해서 비보건계열 및 보건계열 집단 간의 인식차이 등은 독립표본 T검정(t-test)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95% 신뢰수준(confidence intervals, CI)으로 표현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정보 사항은 Table 1과 같았다. 비보건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은 114명으로 55.3%였고, 보건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은 92명으로 44.7% 으로 비보건계열 학생이 더 많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N(%)
Non-health science students	114 (55.3)
Health science students	92 (44.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3.2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의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비보건계열 보건계열 학생간의 대학 인성교육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학생들이 비보건계열 학생들에 비해 인성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학습을 통한 인성 발달 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인성교육 만족도도 보건계열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특히,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학생들에서 사회생활에서 올바른 인성의 중요성 항목이 각각 보건계열 4.57, 비보건계열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진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역량수준에 대해서는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 없이 우리 나라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need for character education in non-health science and health science students

Variables	Classification				p-value
	NHSS		HSS		
	M	SD	M	SD	
Necessity of character education	3.67	0.81	4.40	0.72	<0.001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4.26	0.65	4.57	0.56	0.001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the level of humanity capacity of Korean students	2.79	0.69	2.86	0.84	0.52
Satisfaction of character education	3.07	0.59	3.40	0.81	0.001
Possibility of personality development through learning	3.02	1.02	3.51	1.18	0.002

The data were analysed by independent t-tes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obtained from five points on a scale of 1 point to 5 point.

NHSS: Non-health science students

HSS: Health science students

3.3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의 자기이해 정도, 자기인성역량, 자기효능감 인식차이 비교

비보건계열 보건계열 학생간의 자기 이해정도 인식차이 비교 분석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비보건계열 학생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보건계열 학생의 결과에서는 자기만족항목의 경우 5점 척도 결과에서 3.8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비보건계열 학생의 결과에서는 자기만족 부분에서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만족 항목에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p<0.05$).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의 자기 인성 역량 인식 차이에서는, 친구인생을 잘 이해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는 '소통' 항목과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인 '효', 버스,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잘 양보한다 항목인 '배려', 그리고 학과의 활동 및 규범을 잘 지킨다는 '예' 항목에서 보건계열 학생에서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5$).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 모두 자기 인성 역량 중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인 '존중' 항목에서 각각 4.15, 4.29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비보건계열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항목인 '효' 항목과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정직' 항목에서 3.55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보건계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항목인 '정직'에서 3.60으로 낮은 인식도가 나타났다.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의 자기효능감 인식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해도 끝까지 내 뜻대로 한다 항목인 '의지'에서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 학생 모두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항목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 항목과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도 나는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항목에서 모두 비보건계열보다 보건계열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p<0.05$). 그러나, 신념과 판단, 문제해결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두 계열 학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self-understanding, self-talent competence, self-efficacy awareness among non-health science and health science students

Variables	Classification				p-value
	NHSS		HSS		
	M	SD	M	SD	
Self-understanding					
Necessity of character education	3.67	0.81	4.40	0.72	<0.001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4.26	0.65	4.57	0.56	0.001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the level of humanity capacity of Korean students	2.79	0.69	2.86	0.84	0.520

Satisfaction of character education	3.07	0.59	3.40	0.81	0.001
Possibility of personality development through learning	3.02	1.02	3.51	1.18	0.002
Self-talent competence					
Communication	3.75	0.67	4.04	0.64	0.002
Filial behavior	3.55	0.68	3.86	0.62	0.001
Collaboration	3.77	0.74	3.92	0.66	0.128
Consideration	4.02	0.71	4.22	0.70	0.047
Courtesy	3.77	0.62	4.08	0.51	<0.001
Respect	4.15	0.62	4.29	0.67	0.113
Honest	3.55	0.59	3.60	0.68	0.612
Responsibility	3.95	0.62	4.02	0.78	0.460
Self-efficacy awareness					
Will	2.35	0.76	2.24	0.79	0.305
Belief	3.42	0.70	3.65	0.65	0.016
Confidence	3.41	0.73	3.50	0.85	0.531
Improvisation	3.49	0.88	3.51	0.68	0.862
Flexibility	3.42	0.76	3.58	0.66	0.127
Assurance	3.18	0.94	3.21	0.81	0.858
Judgement	3.31	0.73	3.59	0.66	0.005
Patience	3.44	0.81	3.55	0.71	0.284
Problem solving	3.31	0.62	3.60	0.66	0.001
Expansion of thinking	3.19	0.65	3.27	0.75	0.423

The data were analysed by independent t-tes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obtained from five points on a scale of 1 point to 5 point. NHSS: Non-health science students HSS: Health science students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non-health science and health science students

Variables	Total	NHSS	HSS	p-value
	N(%)	N(%)	N(%)	
Personality level				
Low	3(1.5)	2(1.8)	1(1.1)	0.001
Ordinary	92(44.7)	64(56.1)	28(30.4)	
High	111(53.9)	48(42.1)	63(68.5)	
The necessity of changing university education for character education				
No	25(12.1)	13(11.4)	12(13.0)	0.558
Ordinary	116(56.3)	68(59.4)	48(52.2)	
Yes	65(31.6)	33(28.9)	32(34.8)	
Do you know about the character education course of the university you are currently attending?				
No	10(4.9)	5(4.4)	5(5.4)	0.022
Ordinary	82(39.8)	55(48.2)	27(29.3)	
Yes	114(55.3)	54(47.4)	60(65.2)	
Do you think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done in the liberal art course?				
No	19(9.2)	13(11.4)	6(6.5)	<0.001
Ordinary	130(63.1)	86(75.4)	44(47.8)	
Yes	57(27.7)	15(13.2)	42(45.7)	
Do you think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take place in major courses?				
No	25(12.1)	16(14.0)	9(9.8)	0.004
Ordinary	75(36.4)	51(44.7)	24(26.1)	
Yes	106(51.5)	47(41.2)	59(64.1)	
Are you satisfied with the current character education course?				

No	79(38.5)	55(48.7)	24(26.1)	<0.001
Ordinary	98(47.8)	50(44.2)	48(52.2)	
Yes	28(13.7)	8(7.1)	20(21.7)	

The data were analysed by chi-square test
 NHSS: Non-health science students
 HSS: Health science students

3.4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의 대학에서의 원하는 인성교육

비보건계열 보건계열 학생의 대학에서 원하는 인성교육을 확인한 결과, 두 학과 모두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서의 인성교육을 제일 높게 원하였고, 사회문화 예술활동, 자기 이해활동, 그리고 독서활동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5).

Table 5. Desired character education according to non-health science and health science students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N)	NHSS		HSS	
		N	%	N	%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activities	132	89	79.5	43	46.7
Social and cultural arts activities	73	36	32.1	37	40.2
Self-understanding activity	31	18	16.1	13	14.1
Reading activity	9	7	6.2	2	2.2

The data were analysed by chi-square test.
 The responses are multiple responses.

4. 고찰 및 결론

최근 정부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자의 증가, 학교폭력, 청소년들의 범죄 및 윤리의식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사회와 학벌중시, 취업난 등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배려하는 인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다[13]. 특히, 보건계열 학생들은 졸업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일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만족도, 요구도 등 및 인성역량

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자기이해수준, 자기효능감 등을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인 인성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 중 보건계열 학과 학생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5점 만점 리커트 척도에서 4.4로 높게 나타났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항목에서 4.57로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비보건계열 학과 학생들 또한, '인성교육의 필요성' 항목과 '앞으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종현[14]의 대학 신입생들의 인성교육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 대학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신입생이 81.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보건계열 뿐만 아니라 비보건계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계열에 구분 없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인성교육 과정에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임에 분명하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인성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고,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14]. 현재, 여러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교과과정 중 저학년 중심의 교양수준에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5]. 인성의 함양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거나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에서 단계에 맞추어 보건계열 학과와 비보건계열 학과 모두 점진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학과별 학생들이 인성역량에 따른 자기이해 수준에서는, 보건계열 학과 학생들이 비보건계열 학과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학과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두 학과 모두 대학 인성교육 시 최우선으로 강조해야 하는 '배려'의 항목과 '책임'의 항목에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효행'과 '정직' 항목은 두 학과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효행' 및 '정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인성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대학 인성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덕목 항목을 연구한 선행연구[14][16]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인, '배려'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체는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있다 [17]. 인성교육을 위하여 대학에서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부과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Goodlad 등[18]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이 무엇을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인성교육 중 어떠한 덕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가를 확인하여 인성교육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과 계열에 상관없이,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서의 인성교육을 제일 많이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사회문화예술활동, 자기이해활동, 그리고 독서활동 순으로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안에서의 인성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인성교육의 내용적 기반에 대한 양적인 체계성과 질적인 맥락 유형을 더욱 충실하게 고려하여 교과과정 및 내용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 학과의 자기효능감 인식 차이는 비보건계열에서 평균 3.25와 보건계열에서 3.37로 자기이해수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 모두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해도 끝까지 내 뜻대로 한다' 항목인 '의지'에서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것은 인성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연구한 장홍준[11]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평균을 나타내었지만, 본 연구에서의 결과에서는 아마도 부정적인 문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응답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대학 인성교육 교과 수업을 위하여 교수,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양적으로 다양화하고, 여러 교수,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인성 수준에 관한 응답에서는 대부분이 '보통' (56.1%)과 '높다' (42.1)로 응답하였고, 인성교육 실천과제에 대한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의 인식 차이에서는, 다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건계열에서 비보건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인성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전미진 [5]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인성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의 항목에서 두 학과 모두 각각 '알고 있다'가 비보건계열에서 47.4%, 보건계열에서 65.2%로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인성교육과정에 관한 만족도에 대한 항목은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 모두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인성교육의 내용은 학생 대상이 일상을 비롯한 사회생활 장면에서 실제로 활용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학습 대상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이 중요하게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하여 학습 대상이 인성교육의 주제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조사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4] 하고 학습 대상마다 인성교육의 주제 내용에 대한 맥락 및 세부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양화[19] 하여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인성 교육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추출은 편의추출방법으로 1곳의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상자의 인성교육에 관한 인식수준 및 교육 필요도에 따른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설문문을 사용하였으나, 실제 인성교육의 정확한 인식도 및 필요도의 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건계열과 보건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행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대학에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어떤 과정과 단계 및 내용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개선하는데 본 연구가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Berkowitz, The science of character education, Hoover institution, 2002.
- [2] H. J. Lim, M. H. Kang, "Ver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and integrity, metacognition, mastery-approach goal, communication skills, and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e at the college leve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4, No. 4, pp. 1019-1052, 2018.
DOI: <https://doi.org/10.17232/KSET.34.4.1019>
- [3] S. Kang, Character education, Yangseowon Pub, 2008.
- [4] I. Park, Reconsidera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and character practice of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Sungshin womes university, Seoul, Korea, pp. 14-16, 2017.

- [5] M. J. Jun, E. K. Noh,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9, No.4, pp.433-442, Apr 2018.
<http://doi.org/10.15207/JKCS.2018.9.4.433>
- [6] H. S. LEE,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task and adjust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 45-56, 2014.
- [7] H. S. Jeong, K. L. Le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5, pp.2633-2647, Oct 2012. G704-000930.2012.14.5.025
- [8] J. Y. Nam, J. H. Kang, "A study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through a docent program: focusing on ASYAAFF SAM program," *Art education review*, No.54, pp.137-166, 2015. G704-000621.2015..54.004
- [9] E.N. Jin, S. H. Kim, "A plan on the character education in practical arts." *Korean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 Vol.12, No.2, pp.250-274, 2012. G704-001559.2012.12.2.010
- [10] S. H. Lee, C. H. Yoon, "Effect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experimental learning activities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 63, No. 4, pp. 539-570, 2015.
DOI: <http://doi.org/10.25152/ser.2015.63.4.539>
- [11] H. Ja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having a good personality, Master's thesi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eoul, Korea, pp. 24-52, 2016.
- [12] O. H. Yoon, K. R. Lee, "A survey on middle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7, pp. 193-203,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7.193>
- [13] K. S. Han, S. H. Yang, K. G. Chon,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ways of coping on symptoms of stress and drinking related problem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8, No.3, pp. 565-579, 2003. G704-000533.2003.8.3.004
- [14] J. H. LEE, "An inquiry into university freshmen's experiences and their awareness on human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0, No. 2, pp. 219-250, 2016.
<http://lps3.www.earticle.net.libproxy.snu.ac.kr/Article/A279892>
- [15]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school's character education-focusing on middle schoo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09.
- [16] S. Y. Hwang, H. H. Lee,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to establish inclusive education with caring and respec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27, No. 2, pp. 103-118, 2017.
DOI: <http://doi.org/10.21024/pnuedi.27.2.201706.103>
- [17] J. A. Jeon, "How do universities teach their students for character development?: a case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curricula of four universities in seoul", *Journal of human studies*, Vol. 31, No. 9, pp. 5-31, 2005. G704-001738.2005.31.9.004
- [18] Goodlad, J. I, Klein, M. F, Tye, K. A. (1979). The domains of curriculum and their study. in Giidlad, J. (ed.), *Curriculum inquiry: The study of curriculum practice*, New York: McGraw-Hill.
- [19] Y. J. Kim, K. S. Kang,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contents system at university level,"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0, No. 4, pp. 117-148, 201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2375511>

최 용 금(Yong-Keum Choi)

[정회원]



- 2007년 6월 :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예방치학전공(치의학석사)
- 2012년 2월 :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예방치학전공(치의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예방치과학, 임상치위생학, 행동치과학, 헬스커뮤니케이션

오 태 진(Tae-Jin Oh)

[정회원]



- 2002년 2월 : 선문대학교 화학과 대사생화학전공 (이학박사)
- 2004년 1월 : 위스콘신대학 약학대학 대사생합성전공 (박사후연구원)
- 2006년 1월 : 센트럴플로리다대학 생분자과학센터단백질생화학전공 (박사후연구원)
- 2009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대사공학, 신규생리확성, 미생물학, 계놈분석학, 단백질구조 결정학, 단백질생화학

이 현(Hyun Lee)

[정회원]



- 2010년 12월 : Univ. of Texas at Arlingto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컴퓨터공학전공 (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사물인터넷 기반 가상물리시스템, 자율 컴퓨팅,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분석 및 의사결정 시스템, 휴먼케어 시스템

김 은 정(Eun-Jeong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학전공 (치의과학석사)
- 2019년 2월 :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치의과학과 예방치학전공 (치의과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치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선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공중구강보건학, 예방치과학

임 근 옥(Kun-Ok Lim)

[정회원]



- 2004년 8월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건학과 구강보건학전공(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과 보건학전공(보건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임상학

홍 지 현(Ji-Heon Hong)

[정회원]



- 2008년 2월 : 대구대학교 물리치료전공 (이학석사)
- 2011년 6월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전공 (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신경과학 임상물리치료